

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연구

(국립산림과학원 공동연구, 1968~계속)

권건형, 양근주, 오준식, 정윤미, 지은미, 박근호

요 약

2013년도 산림병해충 예찰연구 결과,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광주시가 1,904건 중 1,048건으로 재선충 감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포천, 남양주 순으로 조사되었다. 솔잎혹파리 충영율 및 기생율에서는 각각 5.3%, 10.8%로 전년도 대비 증감을 보였으며, 오리나무잎벌레 발생량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안성에서 비교적 높은 밀도로 조사되었다. 미국흰불나방 발생량 조사에서는 화성, 이천에서만 발생, 피해를 보였고 발생시기조사에서는 유아등에 유인 포살된 개체가 없었다.

버즘나무방패벌레의 밀도조사에서는 안성>파주>용인 순으로 개체간의 밀도 차이가 있었고, 참나무시들음병 조사에서 남양주가 천공율 3.8%로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

I. 서 론

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는 주요 산림병해충들의 발생시기 및 발생량 등을 파악하여 방제업무에 활용하며 주요 관광사적지, 국립공원 및 국도도로변의 가로수 등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들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, 건전한 산림유지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외래침입해충들의 생태를 구명하여 방제체계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.